

# 인간의 탈 벗는 방법 가르쳐 주는 자가 구세주

## 마귀는 도를 닦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슬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불경에 쓰여 있는가 하면 바로 격암유록에도 이 이슬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슬을 내리는 사람이 천지개벽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인데 이 세상 하늘과 땅은 죽는 세상 인고로 죽는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 안 죽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 마귀의 형상을 입고 있는고로 사람의 탈을 벗어야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벗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바로 사람의 탈이 바로 마귀의 탈이요, 마귀의 탈이 바로 사람의 탈인 것입니다.

마귀가 도를 닦아 도통을 해서 하늘 나라, 극락세계에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의 탈을 입고 있는고로 마귀의 탈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탈을 입으려면 먼저 마귀의 탈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쓰여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과 똑 같다는 말이지요, 바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 사람의 탈을 벗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었던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만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만 그대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만 바로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하늘 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 남

그런고로 오늘날 사람의 탈을 벗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곧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불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사람의 탈을 벗어 나려면 사람의 성품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도 음란죄라고 그랬던 것이요, 감정 자체가 죄요, 감정 자체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일찍이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감정이 인간의 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이 밀실 안에서 좋아 했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란죄를 짓었다고 해가지고 천길 만길 떨어진 사실이 있었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해도 음란죄요, 내가 슬퍼해도 음란죄요,

내가 가족을 생각해도 음란죄요, 내가 나를 의식해도 음란죄요, 과거를 생각해도 뒤돌아보는 음란죄요, 미래를 예산해도 미래를 예산하는 음란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 옛날의 성품과 고집을 버려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

그런고로 완전히 나를 죽여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나를 죽여야만 바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고로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없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내 과거가 없었다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내 미래를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미래를 걱정하는 음란죄라고 했고, 예산하는 음란죄라고 이 사람이 말했는데 이것은 밀실 안에서 해와 이진자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런고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라는 의식은 죽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탈을 벗어나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나 하면 옛날의 내 성품을 다 버려야 되고, 고집이 있는 사람은 고집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 인간의 탈을 벗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고집을 버려버리니까 누구 말도 다 들어 줘야 하고, 어떤 형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다보면 고집의 성품이 없어지고,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화가 불끈 불끈 나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는

**딱 1년만**

뭐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몇 년이 아니에요, 1년! 딱 1년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만이라도 마음이 변치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1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서 17세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세주라는 사람은 17세로 안 변했을까?” 이런 의문도 생겼지만 그런 매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고로 17세로 변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만 담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1시간 만에 17세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존하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전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오면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려 하는고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자(死者)마귀를 구세주의 분신이 바쁘게 그 마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구세주와는 1촌도 아니요 0촌인 것입니다.

부부지간을 0촌이라고 하고 자식은 1촌이라고 하는데 0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와 사람은 0촌,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의 분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고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가 바로 구세주의 분신이지요, 구세주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2001년 6월 21일 말씀 중에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탈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탈을 벗으려면 바로 자존심 상하는 말, 말하자면 내 흥을 본다든지 나를 모함한다든지 나를 학대한다든지 할 때에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인간의 탈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탈을 벗은 사람인지 안 벗은 사람인지 뭘 봐서 알 수 있

느냐 하면 인간의 탈을 벗는 비결을 정확하게 논하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 자체가 마귀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고 있으니, 몰라도 인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정부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아는 자가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1991년 10월 3일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 : 원현욱 기자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작용

# 피가 곧 생명이다

### 가장 중요한 피의 작용: 세포 조성

붉은 피, 한낱 물질(체액)에 불과한 줄로 알았는데 대체 이것이 생명이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궁금하다면 살펴보도록 하자.

피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신진 대사를 촉진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여기까지는 일반 독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피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세포를 조성하여 살과 뼈를 이루고 온 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피가 무엇보다도 인체를 구성하는 근본물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일찍이 <피의 순환이론>을 제창한 윌리엄 하버는 인체 형성 과정에 있어 피가 최초로 생성되는 부분이며 심장은 피의 순환을 위해 주어진 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증은 아기를 잉태한 임신부의 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탯줄을 통하여 임신부의 피를 공급받는다. 공급받은 피로써 세포분열을 일으켜 세포가 조성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기의 몸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분만하여 나온 아기를 보통 “핏덩이”라 부른다. 그 핏

덩이에서 살 근육 뼈 막 연골 등 구체적인 기관들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아기의 몸을 피 그 자체로 본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친다. 옛말에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피로 몸이 만들어지고, 다시 골수에서 다시 피가 만들어지는 순환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피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결국은 피 자체가 몸을 이루고 있고, 몸 자체가 또한 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 피: 인간의 동력원이자 생명이다.

피가 돌지 않으면 인간은 문제가 생긴다. 칼에 베인 상처라도 피가 잘 통하도록 싸매어 놓으면 피가 통하면서 새 살이 이내 돌아온다. 만약 베인 상처를 피가 난다고 꿩꿩 묶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못 쓰게 된다. 만약 신체에 이상(異狀)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다.

이러한 사실을 수천 년 전에도 동·서양의 의술을 다루는 고전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공심장, 인공뼈, 인공관절



등 거의 모든 인체의 기관들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피만은 못 만든다. 피만은 아직까지 어떠한 고도의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만들 수 없다.

21세기의 인공지능의 시대 첨단과학의 시대라 할지라도 무기물(無機物)에서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피 또한 복잡 오묘하고 신비한 물질이라 여전히 그러하다.

고대 중국인들은 생명 현상의 근본적 에너지 개념을 기(氣)라는 말로써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기는 인체 내에 축적된 유형의 물질인 피에서 때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에너지 화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피 자체를 생명활동의 원동력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고대중국인의 생명관은 한 방의 화학에서 전승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 세대로서는 다소 이러한 생명관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피는 생명이고, 생명 자체가 곧 피

요즈음은 피가 건강과 생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간행물과 방송의 이슈가 만발(滿發)하고 있다. 그만큼 피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대단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기운이 왕성하고 생명력이 강하게 뻗칠 때 ‘피가 끓는다’고 은연중에 말한다.

이는 피가 온 몸을 힘차게 돌며 모든 조직과 기관에 생명력을 잘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침대를 벗 삼아 나뉘는 사람을 흔히 ‘시체놀이’한다고 조롱하는데, 이는 피의 움직임이 없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가 우리 인체 내에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진지하게 살펴보자. 두통이 잦아들고, 쉽게 피로하고 일어나는 것이 버겁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잘 놀란다. 머리가 무겁고 자주 아프다. 손발 발끝이 저린다. 저혈압이 온다. 손바닥이 차고 전체적으로 냉하다. 이처럼 피가 온 몸을 돌며 생명력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

가 없이는 인간은 단 1분도 살 수가 없다. 또 교통사고라든가 급작스런 놀람으로 말미암아 피가 거무스레하게 변하여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는 수도 있다.

피가 탁해지면 강물 속 물고기가 죽어나가듯 피를 구성하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등도 손상을 입게 된다.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백혈구가 손상되면 면역기능이 저하된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손상되면 혈전이 유발된다. 또 산소나 영양소의 공급, 노폐물의 배설 등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생명이 되는 피가 변질(탁함, 썩음)됨으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운반책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가 생명이고, 생명 자체가 곧 피에 있다. 그러므로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며, 피가 어느 정도 이상 썩으면 몸과 마음에 이상이 오고 더 나아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있는 체액인 피가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또는 피 작용이 멈추면 인간의 모든 생명작용이 멈추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이 흔히 사랑을 하트(심장)로 상징처럼 표현하는데 하트란 곧, 심장 생명을 지칭하는 고로 생명처럼 소중한 절대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